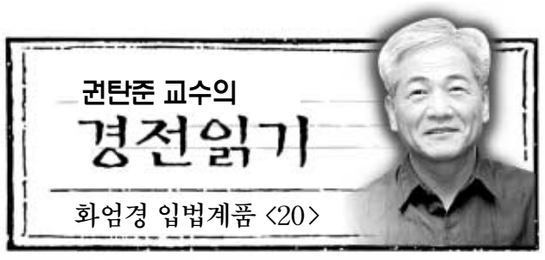

해운 비구의 보안법문

법문은 때·장소 구별없이 무궁무진
삿된 이론 타파 중생들 깨닫게 해

해운 비구가 12년 간 대해를 관찰하면서 터득한 것은 변화무쌍한 생사의 바다인 현실세계가 바로 진리의 세계요, 부처님의 세계라는 사실이다. 해운 비구가 12년 동안 큰 바다를 관찰하다가 그 속에서 큰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나 바다를 장엄한 것을 보게 된 것은 지혜로써 생사의 바다를 관찰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생멸변화하는 생사의 바다도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수한 인연으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법계인 것이다.

지혜의 광명은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비추어 낸다. 지혜에 의해 비춰 나온 진실한 세계는 모든 것이 진리를 따라 변화하는 진리의 세계로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된다. 무수한 세계바다[世界海]는 광대무변해서 '무한'이라는 말로 나타낼 수밖에는 없다. 이같은 광대한 세계바다의 속에서 비춰 나오는 일체의 것은 서로 관계를 맺어서 커다란 조화와 융화 속에서 살아간다.

세계 속에서 하나의 사상(事象: 사물과 형상)은 다른 사상과 교류하고 있으며 교류하는 것은 또 다른 사상과 무한히 교류한다. 이같은 서로의 관통과 융합은 바로 비로자나불에 의지한 것이다. 해운 비구가 바다를 아름답게 장엄하는 연꽃 위에서 부처님이 가부좌하고 계신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한없는 상관관계로서 끊임없이 생멸변화하면서 존재하는 삼라만상 일체의 모습이 그대로 진리가 나타난 것이므로, 이 현실세계가 바로 법신불의 모습이다. 법신불은 본래 어떠한 형태도 갖지 않지만 신력에 의해 일체 국토에서 한량없는 부처님을 나타내어 법륜을 굴리며 일체 세계에 편만(遍滿)한 온갖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화엄경>에서는 천지만물까지도 그대로 부처님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주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지금 살아간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도, 실제로는 부처님의 한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인연을 따라 업을 따라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며, 삶과 죽음을 되풀이하면서 우리들 자체가 부처님의 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부처님 자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형체와 색깔, 모습이 없는 법신불이다. 형체가 없는 부처님이므로 음성으로 설법하지도 않는다. 지금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비로자나불은 끊임없이 설법을 계속하고 있다. 생사의 바다 속 일체의 시간과 장소에서 부처님의 법문은 영원무궁토록 이어진다. 그러므로 해운 비구는 바닷물로 먹을 삼고 수미산으로 붓을 삼아서 쓴다 해도 이 보안법문의 한 품(一品) 가운데 한 문장이나 한 구절조차도 쓸 수 없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보안법문이요, 또한 진실한 <화엄경>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화엄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방편으로써 모습을 나타낸 <화엄경>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부처님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각기 임무를 수행하며 이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구도자의 목적이요, <화엄경>의 목적이다.

보안법문은 지혜의 눈으로 두루 세상의 모든 존재의 모습을 꿰뚫어 본다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보안법문을 통해 현실세계 배후에 영원불멸한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보안법문은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열어 보이고 모든 보살의 진실한 행을 실천하게 하는 근원이 되며, 모든 부처님의 묘법을 열어 밝히는 모든 진리의 가르침이 그 가운데에 들어 있다. 이 때문에 해운 비구는 보안법문이 모든 외도의 삿된 이론을 타파하고 모든 마귀의 무리를 없애게 하여 중생들을 기쁘게 하며, 모든 중생의 근성을 분명히 알아 중생들의 마음을 깨닫게 한다고 설하고 있다.

생사의 바다인 현실세계 속에서 항상 부처님을 만나고 그 가르침을 듣고 수지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의를 갖는가? 생사의 바다에서 영원무궁토록 부사의한 활동을 계속하는 부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생사의 바다 한 가운데에 두고 있으면서도, 생사를 초월해 영원하면서도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사의 바다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법계의 장엄도 발견해낼 수 있다. 이런 지혜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진정한 생존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⑮

돈교에 대한 정의

진실 · 거짓은 한 마음의 작용일 뿐

보조는 화엄에서 말하는 돈교란 다만 부정만 하는 반쪽의 가르침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비판에 대해, 간화선의 화두도 역시 잘못된 집착을 배척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지 않은데, 돈교만이 장애 없는 법계를 깨닫지 못하고 완전한 덕을 갖출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있다. 화엄의 돈교나 선종의 가르침이 똑같이 말을 떠나고, 생각을 떠난 점에서 동일한데, 하나는 치우치고 다른 하나는 원만하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평가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돈교에 대한 이런 식의 논의는 <원돈성불론> 뿐만 아니라 <간화결의론>에서도 거듭된다. 이는 돈교와 선종과의 차이점을 해명하는데 보조가 얼마나 천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간화결의론에서 돈교에 대한 이해를 <대승기신론>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데, 이점은 중국 화엄론자와 다른 점이고 <원돈성불론>의 논의보다는 한결 진보된 해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보조는 돈교를 '한 부류의 생각을 떠난 근기의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라고 하고, '진여(眞如)의 이치는 말을 떠나고 생각을 끊었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에 말을 떠나고 생각이 끊어진 이치를 <대승기신론>에서 찾는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마음의 진여[心眞如]는 곧 법계의 전체 모습이고 법문의 바탕이다. 이른바 심성은 불생불멸하고 모든 존재는 오로지 망념 때문에 차별이 있다. 만일 마음을 벗어나면 모든 경계의 모습이 없다. 모든 존재는 처음부터 말의 형상을 떠났고, 이름의 형상을 떠났으며, 마음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끝내는 평등하여 다름이 없고 파괴할 수 없다. 다만 한 마음[一心] 뿐이므로 진여라고 이름한다.

(물음) 그렇다면 여러 중생들이 어떻게 수순(隨順)하여 (깨우침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답) 만일 모든 존재에 있어서 비록 말한다고 하여도 말하는 주체[能說]와 말할 수 있는 대상[可說]이 없고, 생각한다고 하여도 또한 생각하는 주체[能念]와 생각할 수 있는 대상[可念]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수순이라고 한다.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진리에) 들어간다[得入]고 한다.

보조는 돈교에서 말없는 말로서 드러내려는 이치란 바로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심진여문(心眞如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마음의 진실하고 한결같은 문이라곤 하지만, 실제로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妄念]이란 본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과 잘못됨은 다만 한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그래서 다시 떠날 것이 없고, 양자는 모두 본래 참된 성품이 인연에 따라 작용한 것이므로, 영원히 끊이지 않으며 또한 깨뜨릴 필요도 없다. 그러나 중생들은 헛된 이름과 형상에 집착하여 선과 악, 더러움과 깨끗함, 세속과 출세간을 구분하여 서로 다툼만 일삼는다. 그래서 부처는 양자를 모두 부정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바로 돈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교의 가르침에 또 다시 집착하여 '생각과 말 떠남'만을 능사로 삼고, 부처의 참뜻을 알지 못한다고 보조는 말한다.

이상으로 보면 돈교란 '말하는 주체와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고, 생각하는 주체와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이해한다. 이런 연후에야 비로소 말과 생각을 벗어나 진여문(眞如門)에 들어간다고 본다. 그러므로 보조는 돈교란 다만 이치를 깨우쳐 부처를 이룬다고 말하고, 돈교를 따르는 무리들은 '진정한 법계의 장애 없는 법계'를 깨닫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삼신설(三身說) : 불교의 인간 구성

사람은 법·보·응신이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
인간은 물리· 에너지· 심적 구조로 구성

인간 구성에 대해 <한마음 요전>은 "사람은 법신(法身), 보신(報身) 그리고 응신(應身)이 둘 아니게 돌아간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법신은 마음을 말하고, 보신은 몸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 무위법(無爲法)을 말하며, 응신은 몸 중에서 눈에 보이는 유위법(有爲法)을 말한다. 이런 구분이 바로 불교의 삼신설(三身說)인데, 말을 바꾸면 인간은 3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천태종에도 '원융삼제 (圓融三諦)'란 말이 있는데, 삼제(三諦)란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겉으로 나타난 상(相)을 두고 말할 때는 가제(假諦), 즉 응신여래(應身如來)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相)을 두고 말할 때는 진제(眞諦) 또는 보신여래(報身如來)라 하며, 이 둘을 초월해 사람을 볼 때는 공제(空諦) 혹은 법신여래(法身如來)라고 한다"고 한다. 따라서 원융삼제(圓融三諦)란 가제와 진제, 공제가 둘 아니게 하나처럼 돌아가는 도리를 말한다.

런던대학의 이론물리학 교수였던 데이비드 봄(David Bohm)은 인간을 육체(body)와 마음(mind)의 2중 구조인 동시에, 육체는 다시 눈에 보이는 질서(explicate order)와 숨겨진 질서(implicate order)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눈에 보이는 질서(explicate order), 숨겨진 질서(implicate order) 그리고 의식체(mind) 등의 3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미국의 양자 생물학자 글렌 라인(G. Rein)도 <양자 생물학>이라는 저술을 통해 사람은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3중 구조란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 구조(physical structure)와 육체 속에 부단히 흐르고 있는 에너지 구조(energy structure) 그리고 심적 구조(mind structure)라고 하였다.

여기서 물리적 구조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육체와 동일한 것이며 에너지 구조란 인체를 구성하는 장기 등에 존재하는 에너지 구조이다. 장기를 구성하는 조직에는 조직장(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에는 세포장(場),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에는 분자장(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에는 원자장(場),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양성자 및 중성자에는 전자장(場), 양성자장(場) 및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에는 쿼크장(場) 등이 있다. 더불어 심적 구조는 몸의 크기와 비슷한 공간에 몸과는 중첩되어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spiritual energy)로 구성된 존재라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불교에서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은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은 3중 구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점을 현대의학은 배워야 한다. 만약 인간을 3중 구조로 파악하는 이론을 현대의학에 접목시킨다면 우리는 물리적 구조인 몸과 함께 인간 구성의 다른 요소인 에너지 구조와 심리적 구조를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인간 구성 요소의 1/3만 다루는 현대의학은 몇 단계 진보하는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충남大 의대 산부인과학

『국내 파동명상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파동명상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파동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파동명상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파동명상 -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파동명상 지도자 전생연구학회에서 파동명상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 (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전문반 과정을 마친 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파동명상 수업외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 5월 3째주, 5째주

수업에 참가하신 많은 스님들이 영가천도 및 제령부분에서 영가 또는 빙의령과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이 코너는 저희 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스님 · 법사님들의 놀라운 경험담을 싣고 있습니다.

동방 파동명상학회 부산지회장인 조병철 법사님.

동방 파동명상학회 부산지회장인 조병철 법사님(019-567-7768)은 2003년 4월, 부산시 사하구 장림1동에 사는, 올해 대학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교 3학년 K군을 상담하게 되었는데 K군은 지난 3월 초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오른쪽 귀에서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심하게 들리면서 두통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기 시작했는데 듣기시험이 수험 불가능 상태가 되었다. 대학병원에 18일간 입원하여 C.T.촬영 및 M.R.I. 등의 각종 최첨단 의료장비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명은 "돌발성 신경성 난청"으로 진단 받아 호르몬 주사요법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차도가 없어 퇴원하였다고 한다. 그 증세로 인하여 K군은 대학입시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었는데 다행히 지인의 소개로 조법사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조법사님은 **파동명상요법**으로 K군의 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K군에게는 21살 때 육교 밑에서 교통사고로! 목이 부러져 즉사한 '김경희'라는 여대생이 K군의 오른쪽 귀에 빙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빙의령이 하는 말이 자신은 외롭고 심심해서 K군과 같이 놀려고 오른쪽 귀에 앉아서 장난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흰색 드레스를 입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칭얼대는 그 불쌍한 영가를 조법사가 그 자리에서 제령 천도하고 난 뒤, 그 날 이후 K군은 원래의 건강을 되찾아 지금은 열심히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